수 학 보 고 서

소 속		사회과학대학(정치외교학과)
파 견 국 가		프랑스
파 견 대 학		Lille Catholic University
파 견 기 간	시작	(2023/01)
	종료	(2023/03)

준 비 과 정	**국제교류프로그램에 지원하기까지 과정**
	국제교류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문화권의 학생들과 소통하며,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, 해당 국가의 교육을 직접 접해보면서 견문을 넓히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.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 교류 및 새로운 교육환경에서의 경험을 가져가고자 하였습니다.
	파견교 지원 과정
	릴 가톨릭대학은 교환학생의 특화된 학교로 다양한 문화권의 학생들이 매년 교환학생으로 해당 학교를 오게 되어, 여러 문화권의 학생들과의 교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파견교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. 뿐만 아니라, 릴 가톨릭대학의 인문사회 관련 수업이 특화되어 있다는 점 또한 파견교 지원에 영향을 주었습니다.
	파견국가 출국 준비 과정 (비자, 항공권, 준비물 등)
	(비자) 파견교 개강(1월)이 한국보다 빨라 직전 학기 종강 직후 출국해야 했습니다. 그 전에 비자를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비자 발급은 입학허가서가 나오자마자 빠르게 진행했습니다. 비자발급을 위한 캠퍼스 프랑스 절차(서류 및 면접)와 대사관 면접 등에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데, 이 때 시험기간과 겹치는 등 스케줄 조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기를 권합니다. **(항공권) 왕복 비행기 티켓으로 발권한 뒤 귀국편을 일정에 맞게 변경하는 방식을 추천 받아 그 방식으로 예매했습니다. 제 경우에는 운이 좋게도 기존 귀국편이 스케줄 변경되어 수수료 없이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.**

	(준비물) 백팩, 기내용/화물용 캐리어를 들고 갔습니다. 이후 필요한 물품은 택배를 받긴 하였으나 생각보다 파견 기간이 짧아져서 크게
파견학교	**공항 픽업 & 오리엔테이션**
	(공항 픽업) 공항에서 파리 시내로 이동하는 택시는 정찰제 입니다. 택시를 타고 역으로 이동한 후 떼제베(TGV)를 타고 릴(Lille)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. **(오리엔테이션) 학교에서 공지하는 시간에 맞춰 파견교 설명을 들은 후, 친구들과 학교 측에서 제공해주는 점심을 함께 먹었습니다.**
	수업 & 학교 활동
	파견교 국제교류팀에서 영어로 이루어지는 수업을 리스트업 해서 유인물을 주셨습니다. 저는 제 전공과 관련한 수업들은 모두 미국인 교수님이 강의 하셨기 때문에 비교적 소통이 수월했습니다. 프랑스 교수님이 진행하셨던 수업에서는 교수님께서 프랑스어로 수업 후 영어로 다시 설명해 주셨습니다(교수님마다 수업 방식은 다른 듯 했습니다).
	기숙사 및 학교 내 편의 시설
	기숙사는 학교와 협약을 맺은 곳들 중 선택하여 사용하였습니다. 대부분 1인실이었기 때문에 저는 화장실/주방이 공용사용인지 개인사용인지를 중점으로 살펴봤습니다. 그리고 우선순위를 매겨 신청하는 방식이었습니다. 한국과 달리 온돌 및 보일러가 잘 되어있지 않아 매우 추웠습니다. 전기장판 꼭 챙겨가시길 추천 드립니다. **학교 내에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곳, 식사와 간식을 파는 카페테리아 등 편의시설이 있습니다.**
주변환경	**거주지 주변 지역 정보**
	기숙사가 학교와 거리가 있어서 불편했지만 도보5분 거리에 지하철이 있어 큰 어려움 없이 학교를 다녔습니다. 또한 5분거리에 빵집과 슈퍼마켓이 있어 식료품을 공급받기에 용이했습니다. 이케아와 까르푸가 큰 규모로 위치해 있었습니다(도보 10분). 그 근방에는 맥도날드를 비롯한 여러 음식점도 있었기 때문에 산책삼아 다녀오곤 했습니다.
	파견 대학 소재지 지역 정보
	릴은 프랑스 북부에 있어 벨기에와 가깝습니다. 또한, 릴은 벨기에, 네덜란드, 영국 등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데 용이하고 교통이 비교적 잘 되어있는 편입니다. 특히 수도인 파리로의 이동도 떼제베로 1시간이면 갈 수 있었습니다. **릴 플랑드르 역과 릴 유럽 역 2개의 기차역이 있어서 프랑스 다른 지역을 여행할 때도 떼제베와 유로스타를 이용하기 편리했습니다.**
비 용	**등록금 (해당 학생만)**

[별첨] 수학보고서

	기숙사 비용 (해당 학생만, 학기당)
	기숙사/서비스 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한 달에 약 80만원이 안되는 정도였습니다.
	추가 비용 (교재비, 보험 등)
	출국 전 유학생 보험 비용이 있었습니다.
	생활비
	제 경우 식비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. 장바구니 물가 자체가 한국에 비해 훨씬 저렴한 편이었기 때문에 여건이 된다면 해먹는 편이 경제적 입니다. 또한 기숙사생 대다수가 직접 음식을 해먹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공용주방을 사용하며 다양한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점도 메리트 있었습니다.
	한달 평균 지출 비용
	이 부분은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따라 다른 듯 합니다. 제 경우에는 학기중에 가까운 나라를 모두 가보겠다는 생각으로 매주 여행을 다녔기 때문에 여행경비로 많이 지출했습니다.

교환학생 기간 동안 느낀 점

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진행하며, 다양한 문화권의 학생들과 교류하며 제 시각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. 새로운 환경에서 전혀 다른 시선에서 진행되는 강의를 수강하고 유럽 이곳 저곳 여행하며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, 앞으로는 어떤 활동들과 경험들을 쌓아 나갈지 고민해볼 수 있는 경험이 되었습니다.

사진 첨부 (최소 5장)

[별첨] 수학보고서